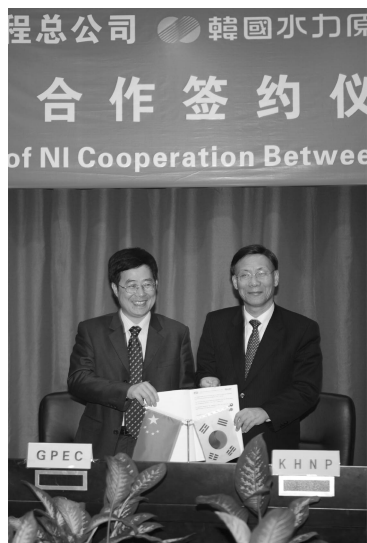


원자력 NEWS

중국과 1,500만달러 규모 기술용역 계약 체결 한수원(주), 양장원전 3,4호기 기술 자문



원자력 기술 수출이 잇따르는 등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앞두고 이른바 '원자력 특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은 3월 3일 중국 광둥화전공정총공사(中國廣東火電工程總公司, GPEC)와 1,550만달러(약 148억원) 규모의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에 따라 광둥화전공정총

공사가 중국 광둥성 양장에 건설하게 될 양장원전 3,4호기 현장에 오는 2013년까지 총 40명의 인력을 파견, 원자로 계통의 기전 공사에서 기술 자문을 맡게 된다.

양장원전 3,4호기는 우리나라의 울진발전소와 같은 개선형 프라마톰 노형(CPR1000)으로, 2009년부터 원자로 건물 공사가 본격화된다.

총 1,550만달러에 달하는 이번 계약은 설계, 연료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국내 원전 기술 용역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기자재 수출과 달리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 기술 수출로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1993년 광둥원전에 운영 지원 사업으로 중국 시장에 첫 진출한 후 15년간 친산원전 2단계, 친산원전 3단계, 링아오원전 등의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한수원의 수준 높은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력이 인정받은 결과여서 한수원은 향후 한국형원전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중국 원전 사업자와 긴밀한 신뢰 구축을 통해 연속 수주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한수원이 305만 달러 규모의 중국 광둥핵전집단공사(CGNPC) 링아오원전 2단계의 1차 계통 기전 분야 기술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2차 계통 공사를 수행하는

GPEC이 한수원의 뛰어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원자력 발전(發展)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총 116기의 원전건설을 확정함에 따라 1차 계통 기전 공사 기술 용역 시장만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이 이미 2차례에 걸쳐 1,805만 달러 어치의 계약을 따낸 바 있는 링아오원전 및 양장원전의 소유주인 CGNPC는 향후 광둥성 바이룽원전을 비롯해 28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어서 추가 수주 전망도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30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지만 시공 관리 및 운전, 정비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수원은 중국의 3대 원자력 사업자와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링아오와 양장원전 소유주인 광동핵전집단공사(CGNPC) 외에도 지난 1996년부터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소유인 친산원전 3단계 건설 및 시운전 분야에 148명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운전 및 정비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전 분야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오고 있다. 친산원전 2단계에서도 교육과 정비 분야의 사업을 수주, 업무를 수행했다.

이밖에 하이양원전을 시작으로 새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CPI)와도 사업 관리 분야, 교육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상호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중국 내 기술 용역 시장이 급팽창함에 따라 앞으로 교육 및 운전, 정비 분야의 기술

수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내륙 지역을 포함, 총 116기의 원전 건설을 확정된 상태인데다 현재 103기를 운영 중인 미국과 21기를 운영 중인 캐나다 등지에서도 원전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 2006년 중국 링아오원전에 305만달러 어치의 기술 수출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21건 62명의 기술 용역을 수출한 바 있으며, 총 2,61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터키 원전 사업 수주전에 본격 착수
한전, 10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

원전 수출은 국내 전력 분야 해외 사업의 최대어로 꼽힌다. 사업 규모와 파급효과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전 건설에 주춤했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 기술과 인력이 풍부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징조다. 때문에 한전을 비롯한 국내 전력산업계는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첫 대상이 터키다.

터키는 현재 외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적극적이다. 터키는 당장 오는 6월 입찰서를 마감하고, 10월께 원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터키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터키 원전 사업 수주는 국내 처음으로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전 수입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터키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500만k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효한 뒤 12월에는 원전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전 건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터키 엔카(ENKA)와 원전 사업 입찰 참여 문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키로 하는 등 터키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엔카는 터키 정부가 최초 원전 사업의 경우 자국 업체와 외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전이 선택한 현지 파트너다.

이 회사는 터키 화력발전소의 50%를 건설했고, 터키 내 발전량의 16%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를 보유한 터키의 최대 건설사다.

한전 관계자는 “터키 원전사업은 약 1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만약 수주하면 200억 달러 이상의 기대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라 우리나라는 물론 러시아,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만약 이번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터키는 아시아,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국내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걸 한전 사장은 터키 원전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 착안, 지난 1월 25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셀라하틴

치멘(Selahattin Cimen) 터키 에너지부차관과 원자력청장, 전력거래소 사장 등을 만나 터키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원전 사업자 선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아흐멧 틱틱(Ahmet Tiktik) 국가기획청장을 면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터키 내에서 ‘친한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인도네시아에 OPR1000 도입 협력 요청

김종신 한수원 사장, 인니 부통령과 면담



김종신 한수원(주) 사장은 2월 26일 대한상의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와 원자력 분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 가능 국가로 접쳐지고 있다.

김종신 사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유수프 칼라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인 OPR1000이 인도네시아 원전 사업 진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 노형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최초 원전

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996년 인도네시아 원자력청(BATAN)과 원전 개발 협력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 관련 기관 및 전력공사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6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원에너지부와 한국 산업자원부 간에 MOU를 체결해 인력 양성, 부지 조사 등 최초 원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수행 중이다.

캐나다에 원전 자재 수출 한수원(주), 불용처리 자재 62만 매각

한수원(주)은 2월 13일 캐나다 중수로 원전 소유자그룹(COG : CANDU Owners Group)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설비 개선으로 불용 처리된 자재를 62만C\$에 매각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매각 대상은 월성 1호기 터빈 속도조절기 계통의 구형 자재들로서 국내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기기가 교체되면서 폐기 처분된 기기들이다.

이번 계약은 월성원전과 동일한 노형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원전 운영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매각 협의를 추진한 결과 성사된 것으로, 불용 처리된 자재를 고가로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월성원전과 동일한 원전 18기가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에 국내 자체 개발로 성능이 입증된 신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수출 가능성도 제고 시켰다.

터빈 속도조절기는 터빈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부품으로, 중수로 원전의 원전 기술국이자 수출국인 캐나다에서도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구형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최초 IAEA 조달 물자 설명회 성황 KONICOF, KOTRA 주최



국제연합(UN, 유엔) 산하 기구인 IAEA 조달 설명회가 3월 4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카데미 강의실에서는 열렸다. 원자력국제협력재단(KONICOF)과 KOTRA가 함께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크리스토퍼 헤슬링(Christopher Hesling) IAEA 조달 담당관과 레이아드 카멜(Reyad Kamel) 한국 지역 담당관이 초청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계측제어, 방사성동위원소, 방화재, 발전 설비, 전기 히터, 파이프, 컨설팅, 폐기물 등 원자력의 여러 사업 부분을 비롯해 국제 물류, 통신 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수십여 업체에서 참여해 국제 기구를 통한 수출에 대한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해외 진출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국제 기구 조달 프로그램을 배우고 해외 수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기업들이 유엔 안의 국제기구들과 사업을 하려면 분야는 다를지라도 모두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IAEA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업들에게 유엔 진출에 대

해 조언을 하고 싶다.”는 말로 설명회를 시작한 헤슬링 담당관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IAEA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 뒤 IAEA 조달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에 대해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IAEA 조달 시장의 거래 규모는 2003년 68.7백만 달러, 2004년 70.9백만 달러, 2007년에는 132백만 달러였다. 헤슬링 담당관은 “조달 시장의 규모와 내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르므로 세계의 공급자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런 회의는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슬링 담당관은 “반드시 공급자로 등록하고 유엔의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따를 것”을 강조하고 기업들에게 IAEA뿐 아니라 유엔 다른 기구들에게도 업체들을 만나볼 것도 권유했다. 또한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

1부 설명회가 끝난 뒤 조달물자 시장을 통해 해외 수출에 성공한 국내 기업들의 성공 사례 발표가 열렸다. 발표에 나선 업체는 이비테크(주)와 호진산업기연으로, 두 업체만의 조달 시장 참여 성공 요인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비테크(주)는 연구소로 출발한 특성을 살려 IAEA의 여러 연구과제에 참여해 조달 시장의 길을 열었으며 호진산업기연은 인적 교류와 교육을 통해 조달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늦은 시간까지 기업들의 1대 1 면담이 이어졌다. 헤슬링 담당관과 카멜 담당관은 면담을 신청한 업체의 대표들과 직접 만나 꼼꼼히 자문하고, 업체들의 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했다. 이번 설명회는 유엔 산하 기구 조달 담당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참석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국내 원자력 업체들의 국제 시장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지는 기회로 평가된다.

울진원전 RFID 자재 관리 시스템 준공

자재 관리 전 과정 자동화, 원전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한수원(주)은 2월26일 울진원자력본부에서 김종신 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태그를 이용한 자재관리시스템 준공 행사를 가졌다.

한수원이 지난 2006년부터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구축한 전자태그 자재관리시스템(RFID)은 전자 태그에 자재 고유 정보를 입력, 무선 인식을 통해 입고, 재고 조사, 출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원자력발전소 개별 자재의 수명과 사용 이력을 컴퓨터로 철저히 관리, 원전의 안전 관련 사전 예방 활동을 지원하며 갑작스런 정비에도 신속한 자재 공급이 가능해 원전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한수원은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고 조사 인력 절감 등을 포함 연간 약 50억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전자적자원관리(ERP)시스템과 연동되는 RFID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한데 이어 고성능의 자재 입출고기까지 자재 설계·제작에 성공함으로써 기술 전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신 사장은 “이번 시스템

의 도입으로 자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일 뿐 아니라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영 혁신을 가속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스마트 태그라고도 불리며, 카드 안에 초소형 칩을 내장하고 물품 고유정보를 입력하여 무선 전파를 이용, 짧은 시간에 판독하는 물품 자동 인식기술 중의 하나이다. 기능은 바코드와 비슷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개를 인식할 수 있어 바코드보다 활용 범위가 훨씬 넓으며 자재 관리 외에도 농산물 이력 관리, 문화재 방재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원전 세정 폐액 처리 기술 국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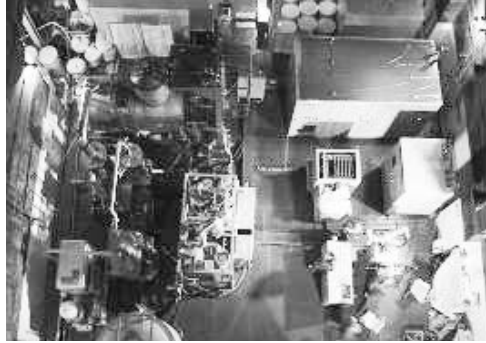
KEPRI, 국내 최초 플라즈마 활용 농축 폐액 열분해 처리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박상덕)은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한 세정 폐액 처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원전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폐액을 시간당 250리터씩 증발시킬 수 있는 진공증발기와 농축된 폐액을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해 열분해 처리하는 시스템, 발생한 배기체를 환경 방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배기체 정화 설비 등으로 구성됐다.

회전반응로 시스템을 이용한 이중 연소로를 채택,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처리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NOx 가스도 환경 방출 제한 값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최종 부산물도 바닥재(Bottom ash) 형태로 만들어 곧바로 드럼에 담아 처리할 수 있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 기술을 이용해 고리 원전의 증기발생기 화학 세정 폐액을 처리한



결과, 폐액 속에 함유된 다량의 킬레이트 화합물이 99.9% 이상 분해·처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액 처리 분해 기술은 화학 세정 폐액 처리뿐만 아니라 염색 단지의 폐수, 난분해성 공단 폐수 처리 분야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력연구원은 원전 세정 폐액을 해외 전문 회사에 위탁 처리할 경우 톤당 1000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번에 세정 폐액 처리기술이 국산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 폐액 처리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 영향 평가 워크숍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3월 12, 13일 양일간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환경 영향 평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원자력 시설 운영 중 환경 영향 평가 워크숍’을 충북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한전 전력연구원(KEPRI), 한전 원자력연료(주)(KNF), 한국전력기술

(주) (KOPEC), 현대엔지니어링, 에네시스 등 국내 원자력 기관 및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 시설 운영과 규제, 연구를 담당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환경 영향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들을 공유하고, 폭넓은 토론의 장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또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 방사선량 평가, 시설 주변 대기 확산 인자 평가, 원자력 이용 시설 주민 피폭 선량 평가 등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폐널 토론도 이어졌다.

한수원, '한국노사협력대상' 우수상 수상



한수원(주)는 우수한 노사 문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21일 조선히텔에서 열린 '2008년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외부 전문 기관의 노무 관리 진단을 받아 노사 관계 수준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찾는 등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01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의 분규도 없이 건강한 노사 문화를 가꾸어 왔다.

또한 가족 친화 경영 컨설팅 수행, 외부 전문가 초청 노무 관리 순회 교육, 노사 합동 대외 행사 참석, 노사협의회의 효과적 운영 등 노사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수원은 이와 같은 협력적인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6위의 설비 규모와 높은 원전 이용률을 자랑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국가 현안인 방폐장 부지도 성공리에 유치, 착공함으로써 노사 협력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종신 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의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노사 상생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회사 경영의 양 수레바퀴인 노사가 화합하여 국민의 사랑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과 '노사문화 대상'을 받으면서 모범적인 노사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人事動靜

2. 12 ~ 3. 11

교육과학기술부

03-07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진홍
▲원자력방재과장 서기관 김호성 ▲원자력협력과장 기술서기관 김대기 ▲원자력안전과장 기술서기관 배재웅 ▲방사선안전과장 기술서기관 구혁채 ▲원자력통제팀장 기술서기관 박진선

03-11

▲원자력국 김영식 국장
▲원자력정책과
전기수 기술서기관 김형수 공업사무관 이한국 행정사무관 이정경 공업주사 모덕춘 행정주사 송미선 교육행정주사보 김미영 기능7급 사무원

▲원자력통제팀

서경춘 공업사무관 차상호 공업사무관 유자윤 기능9급 사무원 장기동 전산주사 권상원 행정주사

▲원자력협력과

김진형 서기관 김중철 행정사무관 노경준 행정사무관 김민수 공업주사보 이학모 기능10급 (사무원)

▲고리방사능방재센터방재관실

노수기 행정사무관 송헌명 공업주사보

▲고리주재관실

이영준 기술서기관 배종근 공업사무관 손화중 공업주사 권성철 공업주사보

▲월성방사능방재센터방재관실

강정환 공업사무관

▲월성주재관실

전창효 서기관 윤계선 공업사무관 이성훈 공업주사 차용호 공업주사

▲영광방사능방재센터 방재관실

하광열 공업사무관 조기성 공업주사

▲영광주재관실

백은학 공업사무관 유경근 공업사무관 김현웅 공업주사보

▲울진방사능방재센터방재관실

김상희 행정사무관 최창훈 행정주사보

▲울진주재관실

김중호 기술서기관 신중환 공업사무관 김석준 공업주사

지식경제부

03-03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관리과장 성시현 기술서기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원자력산업과장 최태현 서기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방사성폐기물과장 나기용 기술서기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기술팀장 문승욱 서기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기후변화정책팀장 진종욱 기술서기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석유산업과장 박청원 부이사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장 김학도 부이사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과장 장석구 서기관

▲자원개발정책관실 자원개발총괄과장 백두옥 부이사관 ▲자원개발정책관실 유전개발과장

NEWS

이승우 기술서기관 ▲자원개발정책관실 석탄자
원과장 박순기 서기관 ▲자원개발정책관실 신재
생에너지과장 김기준 서기관 ▲자원개발정책관
실 광물자원팀장 김영환 서기관

한국전력기술(주)

02-28

▲경영기획처장 이배수 ▲사옥이전계획실장
박노진 ▲원자력사업관리실장 김종식 ▲배관기
술처장 조직래 ▲환경기술처장 조기창

원산 소식

제152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미국원
자력학회-한국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52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2월 2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25명이 참석한 이 날 강연회
에서 이명철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는 「방사
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TPC 2차회의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한국원자력학

회(KNS) 공동 주최로 2008년 4월 16일
(수)~18(목)일 서울 셰라톤 위커힐 호텔(광진구
광장동 소재)에서 개최 예정인 제23회 한국원자
력연차대회(The 23rd KAIF/KNS Annual
Conference)의 프로그램 최종 구성을 위한 기술
기획위원회(TPC) 제2차 회의가 3월 12일(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강창순 TPC 위원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
수)을 비롯한 TPC 위원(세션 코디네이터)과 주
최 기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개회 세션, 패넬 세션, 기술 세
션별 발표자 및 발표 논문 현황 검토와 세션 구성
대책 협의 등 최종 프로그램 구성과 대회 운영 방
향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